

## 모세오경창세기 중심의 선교(적 교회)

강화구

성경은 타락한 인류에게 그들의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삼위 하나님에 대해 알려 주는 책이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언약 백성의 주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시다. 하지만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순종하지도 않는다(출5:2).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이후에 다음과 같이 선포하신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 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출9:16<sup>1</sup>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선교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성경은 본질상 그 시작부터 끝까지 선교적 목적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사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지만, 동시에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에게 주어진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

1. 열 가지 재앙을 통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다는 주제는 다음을 참조하라(출7:5,17; 8:10,22; 9:14,16; 12:12; 14:18).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모세오경, 특히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을 살펴보고자 한다.<sup>2</sup>

## 1. 창세기 1~11장에 나타난 선교적 부르심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만일 선교적 부르심을 단순히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제한한다면, 선교적 부르심은 적어도 타락 이후의 일이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쾨스텐버거 A. Köstenberger와 오버라이언 P. O'Brien은 에덴 동산에서는 '선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첫 번째 원시복음에서부터 타락한 인류를 위해 '선교'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sup>3</sup> 하지만 선교의 목표가 온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 있다면, 선교의 견고한 토대는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찾아야 마땅하다.<sup>4</sup> 왜

- 
2. 성경을 선교적 관점에서 읽어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들을 참고하라. Michael W. Goheen, *Reading the Bible Missionally* (Grand Rapids: Eerdmans, 2016); Craig Ott and Stephen J. Strauss, *Encountering Theology of Mission: Biblical Foundations, Historical Developments, and Contemporary Issue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0); 김은수, "구약의 선교적 해석과 실제: 오경과 역사서를 중심으로," 『선교신학』 42 (2016), 95-116; 이훈구, "구약성서와 선교적 함의: 창세기를 중심으로," 『선교신학』 30 (2012), 117-138.
  3. Andreas J. Köstenberger and Peter T. O'Brien, *Salvation to the Ends of the Earth: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 (ed. by D. A. Carson;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1), 251.
  4. '선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꽤 중요한 이슈이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타문화권에 속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규정하지만, 크리스토퍼 라이트를 비롯해 미셔널 처치 운동을 하는 이들은 대체적으로 선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은 선교적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자체가 선교적이며,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선교의 절정이다. 이렇게 볼 경우 하나님의 선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선교적 교회에 있어서 선교는 교회가 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 자체의 사명이 곧 선교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단어를 쓰든 안 쓰든,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선교'는 전통적인 선교 개념에서도 중요하며, 모든 선교의 목적지라도 같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하나님의 선교』 (서울: IVP, 2016), 25-28. 한편 전통적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에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김지찬은 '하나님의 선

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감당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타락과 무관하게 주어진 사명이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해야 할 원래 사명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이 글에서 ‘선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류에게 주신 사명으로, 온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 (1) 하나님의 창조명령에서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주신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1:28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양과 형상으로 인간, 곧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사명을 주신다. 아담과 하와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영역은 ‘땅’ 전체이다. 세상의 창조주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그분의 왕권까지 나눠주신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행위를 통해서, 곧 작은 왕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취해야 한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행위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이뤄갈 수 있다. 그래서 저명한 신학자 그레고리 비일은 이와 같이 말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 목적은 그분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을 통해 온 땅에 걸쳐 자신의

---

교’라는 용어 대신 ‘하나님 중심의 선교’라는 용어로 대체하자고 제안한다. 김지찬, “선교적 교회 운동의 구약 신학적 토대,” 『신학지남』 86/4 (2019), 27-29.

영광을 크게 확장하는 데 있었다.”<sup>5</sup>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분의 왕권을 구현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 받은 것이다. 이 부르심은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sup>6</sup>

## (2) 에덴동산에서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에 동산을 지으시고, 그들을 그곳에 두셨다(창2:8). 그리고 그곳에서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명령하셨다(창2:15). 본문에 언급된 ‘경작하고 지키다’라는 단어는 성소에서 행하는 레위인의 직무와 관련된 용어로 종종 함께 사용된다(민3:7~8; 8:26; 18:5~6).<sup>7</sup> 따라서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감당했던 직무는 마치 성소에서 제사장이 감당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에덴동산은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임재의 장소(창3:8)로서 지성소와 같은 곳이었고, 아담과 하와는 그런 에덴동산에서 봉사하고 지키도록 부름 받았던 것이다.<sup>8</sup> 성소에서 봉사하며 성소를

---

5. 그레고리 K. 비일, 『성전 신학: 하나님의 임재와 교회의 선교적 사명』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110.

6.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반복하신다(창9:1,7). 그리고 이 부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출1:7). 타락한 인류도 창조 명령을 수행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을 회복하는 사명을 가진다. 그런 점에서 창조명령은 성경에 나오는 선교의 출발점이자 목적지라고 할 수 있다.

7. Gordon J. Wenham, “Sanctuary Symbolism in the Garden of Eden Story,” in *I Studied Inscriptions Form Before the Flood: Ancient Near Eastern, Literary, and Linguistic Approaches to Genesis 1-11*, ed. by Richard S. Hess and David Toshio Tsumura (Winona Lake: Eisenbrauns, 1994), 401; 그레고리 비일, 『성전 신학』, 89. 비일에 따르면, 두 단어가 함께 나오는 경우는 구약에서 총 15회 정도인데,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성전에서 봉사(serve)하며 지키는 제사장에게 적용된다.

8. 에덴동산과 성소, 나아가 성전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서는 그레고리 비일의 『성전 신학』, 88-100을 보라. 성막과의 연결점에 대해 더 구체적이면서도 간략한 안내를 보기 위해서는 T. Desmond Alexander, *From Eden to the New Jerusalem: An Introduction to Biblical Theology* (Grand Rapids: Kregel Academic & Professional, 2008), 20-24를 보라. 알렉산더에 따르면, 에덴동산과 성막 사이의 연결점은 생명나무와 메노라

지키는 제사장의 책무를 염두에 둔다면 민1:52~53; 대하23:19; 느11:19, 아담과 하와는 곧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에덴동산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라는 사명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창조명령과 에덴에서의 사명

이제 위의 두 이야기를 종합해 보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신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고 그 땅을 다스리는 것이었다. 반면 두 번째 사명은 에덴동산에 머물면서 그 땅을 외부로부터 지켜내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기는 일이었다. 얼핏 보기에 이 두 가지 명령은 다소 모순되는 것 같아 보인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명령을 주셨을 때 거기에 내포된 의미는, 단순히 에덴동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sup>9</sup>

에덴동산은 상대적으로 작은 땅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실제 창세기 2장 8절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라고 표현함으로써 에덴이라는 지역 안에 동산이 있는 것으로 언급한다. 비록 우리가 통칭해서 에덴동산창2:15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에덴에 있는 동산’인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작은 에덴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자연스럽게 에덴동산의 지리적 확장을 염두에 두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그레고리 비일은 “아담과 하와는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에덴이 온 땅을 덮을 때까지 그들이 동산의 지리적인 경계를 넓혀야 했으리라고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주

---

(menorah, 여러 갈래의 큰 촛대), 물 이미지, 동편 등의 주제와 관련된다.

9. 그레고리 비일은 바로 이 지점을 크게 확장시키면서 자신의 책 『성전 신학』을 전개한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동산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마지막 날에 도시로 확장될 것이다.

장한다.<sup>10</sup> 결국 창조명령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류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정한 왕이신 그분의 통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 (4) 열방의 계보에 나타난 선교적 사명: 창세기 10장

홍수 이후 노아와 자녀들은 온 땅에 흩어져서 열국을 이룬다. 창세기 10장은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어떻게 세상에 충만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서론	1절	(족보, 홍수 후, 낳았다)
야벳의 족보	2~5절	
함의 족보	6~20절	
셈의 족보	21~31절	
결론	32절	(족보, 홍수 후, 나뉘었다)

##### 1) 창세기 10장의 위치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창세기 10장에 나타나는 열방의 족보가 창세기 본문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관련된다. 창세기 11장의 소위 바벨탑 사건<sup>창11:1-9</sup>을 보면, 당시에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으며 한 족속으로 함께 지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1:6</sup>. 그러다가 바벨탑에서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고, 그 결과로 사람들은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sup>11:9</sup>. 그런데 그 흩어진 열방의 목록이 10장에 나오는 것은 어색해 보인다. 따라서 이러

10. 비일, 『성전 신학』, 110.

한 ‘연대기 역구성dischronologization’은 저자에 의해 의도된 것이라 봐야 한다.<sup>11</sup>

10장의 현재 위치는 9장에 이어 나오기 때문에 노아 언약의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바벨탑 사건 뒤에 위치할 경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저자가 10장의 위치를 노아 언약 다음에 그리고 바벨탑 심판 사건 앞에 위치시킨 것은, 열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의 구체적인 성취로 본다는 뜻이다.<sup>12</sup> 노아에게 주셨던 이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명령의 연장이다. 따라서 창세기의 저자는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열방이 원래 하나였으며, 창조 때부터 주어졌던 원래 사명의 성취를 내다보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 2) 열방의 숫자

열방의 족보에는 완전수 7을 선호하여 다양하게 적용된다. 야벳의 족보창 10:2-5에는 14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두 개의 세대에서 각각 7명씩 포함된다. 열방의 족보 전체를 볼 때, 야벳의 후손이 14명, 함의 후손이 30명, 그리고 셈의 후손이 26명으로서, 총 70명이라는 숫자에 열방의 수를 맞췄다. 노아의 후손의 숫자를 70에 의도적으로 맞춘 것은 비록 모든 인류의 숫자를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어림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한 사람 노아로부터 시작된 한 가족임을 강조하는 것이다.<sup>13</sup>

11. 해밀턴, 『창세기1』, 391.

12. 해밀턴, 『창세기1』, 391; 민경구, 『다시 읽는 창세기』 (서울: 이레서원, 2019), 91-93. 라이트, 『하나님의 선교』, 247. 열방의 톨레도트에 대한 자세한 읽기는 다음을 보라. Allen P. Ross, “The Table of Nations in Genesis 10- Its Structure,” *Bibliotheca Sacra* 137 (1980), 336-350 그리고 “The Table of Nations in Genesis 10- Its Context,” *Bibliotheca Sacra* 138 (1980): 22-34.

13 U.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Part II*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64), 175-177.

70이라는 숫자는 성경 내러티브에서도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숫자인데, 특별히 모세오경 안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숫자가 70에 맞춰져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창46:8-27; 출1:1-7).<sup>14</sup>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와 열방의 숫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은 신명기 32장 8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경계를 나누고 기업을 주시며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효대로 하셨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와 온 세상 민족들의 숫자를 의도적으로 맞추었다는 뜻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표는 열방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맥콘빌(J. G. McConville)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선택은 태고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맥락에 위치하는데 이는 구약에서 독특하다. 그러한 계획은 모든 국가도 포함하는데, 그 결과 장대한 하나님의 드라마는 단순히 지난 간 세대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생각하게 한다. .... 여기서 그 전망은 협소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선택은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안에 위치한다.<sup>15</sup>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열방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땅의 모든 족속

14. 그 외에도 이스라엘 장로들의 숫자도 70이며(출24:9), 기드온의 자녀들의 숫자도 70이다(삿8:30).

15. J. G. McConville, *Deuteronomy* (Apollos Old Testament Commentary;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2), 453-454.



에게 복을 선포하시기 전에 창세기 10장은 이미 열방의 목록을 이스라엘의 숫자에 맞춰서 제시함으로써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 2. 족장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창세기 1~11장이 보여주는 실패의 역사를 완전히 역전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 이후 곧장 아브라함을 부르신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언약의 땅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전에 조상들이 실패하여 땅에서 유리방황하던 역사를 근본적으로 되돌리도록 하셨다.<sup>16</sup>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반역을 선택했던 인류에게 창11:4,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다 창12:2.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후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해서 주어졌을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셨다 창26:1~5; 28:13~14; 46:3~4.

---

16. James McKeown, "The Theme of Land in Genesis 1-11 and Its Significance for the Abraham Narrative, Part 1 and Part 2" *Irish Biblical Studies* 19/2 (1997), 51~64; 19/3 (1997), 133~144; Walter Brueggemann, *The Land: Place as Gift, Promise, and Challenge in Biblical Faith* (Overtures to Biblical Theology, 2nd ed,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2), 16~18.

## (1) 아브라함을 부르심 창12:1~3<sup>17</sup>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선교적 부르심에서 가장 결정적인 한 사건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소명 기사는 실제로 창세기 1~11장까지 이어지는 실패의 역사를 일거에 뒤집는 거대한 방향 전환의 신호탄과도 같다. 선교학적인 관점에서도 아브라함의 소명 기사는 ‘가장 중요한 지점’에 있다.<sup>18</sup>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심 자체에 곧 선교적 목적이 있음을 확증한다. 이와 관련해 월터 카이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님의 총체적 계획은 온 땅의 백성들을 축복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 백성을 먼저 축복하신 것은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백성들을 위한 선교사가 되어야만 했다. 그리하여 모두가 동일한 복음을 믿는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다.<sup>19</sup>

아브라함을 부르심의 목적이 선교적이라는 점은 본문 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문법적 기초에 따라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

17.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 부르신 것은 창세기 17장에서 나타나지만, 편의상 이 글에서는 그 이전에 등장하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래를 사라로 통칭해서 부를 것이다.

18. 라이트, 『하나님의 선교』, 251.

19. 월터 카이저, 『구약 성경과 선교』 (임윤택 역, 서울: CLC, 2013), 45.

## 너는 가라

너의 고향으로부터, 너의 친척으로부터, 너의 아버지 집으로부터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며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 너는 복이 되라

그러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위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창세기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크게 ‘가라’와 ‘복이 되라’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각각의 명령은 또한 세 개의 약속을 담고 있다.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명백하게 명령형으로 나타나지만, 개역개정을 비롯해 몇몇 영역본들에서는 이를 미완료형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NIV, ESV 등. 특히 두 번째 명령형은 바브 접속사가 포함된 하야 동사의 명령형인데, 이렇게 두 개의 명령형이 바브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첫 번째 명령이 조건을, 두 번째 명령이 그 조건이 충족된 결과를 뜻하게 된다.<sup>20</sup>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도록 명령하신 것의 목적이나 의

---

20. GKC, §110 f-g. 물론 전반부의 흐름이 명령형+권유형+권유형+권유형 다음에 바브 명령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 명령형을 하나의 결과로서 미완료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령 창세기 42장 18절의 경우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고 번역했는데, 두 개의 명령형을 명령과 미완료형으로 번역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구문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두 개의 명령형으로 번역된다. 성경이 권유형의 연속을 반복하지 않고 바브+명령형을 여기에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굳은 의

도는 그가 열방 가운데서 복이 되도록 하는 것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지만 히브리어의 특징은 (실제로 영어에서 그렇듯이) 두 개의 명령법이 함께 나올 때는 둘째 명령법은 첫째 명령법의 성취로 인해 예상된 결과 혹은 그것이 의도하는 목적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 본문의 두 반쪽을 결합할 때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아브라함이 지시받은 일을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신다면, 결과는 전반적인 축복이 되리라는 것이다. 바울이 말했듯이, 실로 복된 소식이다.<sup>21</sup>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순간부터 부르심의 목적은 단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는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교적으로 불러주셨음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이중적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과 연결된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으로 이끄시고 그곳을 지키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곳을 중심으로 ‘온 땅’을 다스리며 에덴의 삶을 확장해야 할 책임을 주셨던 것과 같다는 것이다.

---

지를 보다 더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명령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Joel Baden, “Morpho-Syntax of Genesis 12:1~3: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Catholic Biblical Quarterly* 72 (2010), 223~237을 보라. 빅터 헤밀턴, 『창세기1』 (임요한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417; 케네스 매튜스, 『창세기2』 (권대영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133. 매튜스는 미완료형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1. 라이트, 『하나님의 선교』, 253~254.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1:27-28

위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온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도록 하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방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그로 하여금 열방에 복이 되도록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아담이 실패했던 창조명령의 완성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창세기 12장 1~3절이라는 짧은 세 개의 구절 안에 복과 관련된 단어가 무려 다섯 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에도 복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אברה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적인 복의 선언과 아브라함의 이름이 서로 연상되어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복을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아브라함의 소명 기사창12:1-3는 두 개의 명령형 해석과 함께 다른 문법적인 특징들도 있다. 동사의 특징을 따라 본문을 다시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명령형 + 권유형 + 권유형 + 권유형

두 번째 명령형 + 권유형 + 미완료형 + 완료형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명령형 다음에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으로서 약속의 말씀이 권유형으로 주어지는데, 두 번째 명령형에서는 미완료형과 완료형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어떤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우선 미완료형으로 표현된 것은 “너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미완료형”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을 권유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표현한 셈이다. 또한 모든 권유형이 접속사 바브와 함께 오는 데 반해, 이 미완료형은 접속사 바브가 없이 주어진다. 그 차이점은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은 모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인데 반해, 미완료형은 저주를 선언하시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복을 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에는 그분의 강력한 의지와 원함이 있지만, 저주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거나 원하시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 같다는 것이다.<sup>22</sup> 이에 대해 김지찬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반면에 흥미롭게도 “내가 저주하리라”<sup>3b</sup>절은 권유형이 아니고 단순 미완료형이다. 따라서 “내가 저주하고 싶다”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저주하게 될 것이다”라고 번역해야 한다. 저주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며, 단순히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기에 저주할 것이라는 의도를 미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sup>23</sup>

마지막으로 고려할 사항은 3절의 마지막 동사가 바브 계속법 완료형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번역되어 있다. 물론 바브 계속법이기 때문에 완료형은 당연히 미래형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앞에 나오는 모든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표현되었는데, 굳이 마지막 단어에서만 완료형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을까? 김지찬은 바브 계속법 완료형을 사용한 것은 이전의 문장에서 연속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완료형으로 표기함

22. 김지찬, “선교적 교회 운동의 구약 신학적 토대,” 21~24.

23. 김지찬, “선교적 교회 운동의 구약 신학적 토대,” 34.

으로써 성경 기자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sup>24</sup> 하지만 권유형으로도 충분히 의지를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완료형을 써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바덴Baden은 완료형이 사용된 것은 이전의 미완료형과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간적으로는 구별된 다른 지점을 의도한 것이라고 본다. 앞에 나오는 미완료형은 동시적인 약속인 반면, 마지막 약속은 그 동시적 약속에 뒤이어 성취되는 것으로 일종의 목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sup>25</sup>

이상의 관찰을 종합해볼 때, 창세기 1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표였음이 분명하다.

## (2) 열방에 복이 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열방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창12:2~3).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계속된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세대마다 새롭게 언약을 재확인시키신다(창26:1~5; 28:13~15). 그리고 이런 약속의 말씀은 족장들이 이방인들을 만나게 됨으로써 열방에 복이 되어야 하는 그들의 사명을 반복적으로 교훈한다.

24. 김지찬, “선교적 교회 운동의 구약 신학적 토대,” 25. 문법적으로 WeQatal(바브 계속법 완료형) 양식은 이전 행동의 시간적 연속, 논리적 결론, 의지 혹은 소망의 표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문법적 사항은 GKC, §112를 참고하라. 또한 다음을 보라. Robert E. Longacre, “WeQatal forms in Biblical Hebrew Prose: A Discourse-modular Approach,” in *Biblical Hebrew and Discourse Linguistics*, ed. by Robert D. Bergen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4), 50~98; Bill T. Arnold and John H. Choi, *A Guide to Biblical Hebrew Syntax*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87~91.

25. Baden, “Morpho-Syntax of Genesis 12:1~3,” 236~237. 그래서 Baden은 창세기 12장 1~3절에 대한 번역을 제안할 때 “and ... and ... and ... then ...”으로 제안한다.

## 1) 아브라함과 이방의 만남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하지만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방인을 만난 장면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간 현장에서 묘사된다<sup>창12:10-13:1</sup>.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다. 그는 애굽 사람들의 도덕성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다. 두려움에서 출발한 거짓말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결국 그의 소망과 달리 아내 사를 애굽의 바로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비록 아브라함 자신은 부를 얻게 되었지만 아내는 영원히 빼앗기게 될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sup>17절</sup>. 이 재앙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애굽의 바로는 아브라함과 사를 잘못 대우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여기서 아브라함은 바로와 그 집에 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월터 브루거만은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다.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참으로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 줄 힘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할 힘도 가지고 있다<sup>창12:3</sup>. 이 이야기의 기이한 결론은 아브라함의 야비한 행동이 저주를 초래했다는 데에 있다. …… 아브라함이 신실하지 못하게 행



동할 때—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다—세상 속으로 저주가 침투해 들어간다. 이스라엘의 신앙이나 그들의 신실치 못함은 그들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민족들 모두에게 문제가 된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기이한 방식으로 민족들의 삶에 영향을 줄 힘을 갖게 된 것이다. 이 점은 12장 3b절의 위대한 약속에 예고되어 있으며,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입증된다.<sup>26</sup>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지어냄으로써 세상에 복이 아닌 저주를 가져왔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세상과의 관계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랄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자세와 기도에서 한층 더 발전된다. 즉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뜻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셨을 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여섯 차례에 걸쳐 기도한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다(창18:18).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이었다. 이렇듯 세상을 향해 변화된 아브라함의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난다.<sup>27</sup>

이런 점은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나타난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장 1절까지에 이어 두 번째로 이방 왕 앞에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이야기가 반복되고,<sup>28</sup> 이러한 아브라함의 연약함으

26. 윌터 브루거만, 『창세기』 (강성열 역, 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8), 209.

27.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와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부름 받았음을 언급한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열방에 복이 되는 것의 윤리적 측면을 강화한다. 라이트, 『하나님의 선교』, 453~462.

28. 창세기에 세 번에 걸쳐 등장하는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이야기는 모두 창세기 12장 3절에 나타난 땅의 모든 족속에게 전해질 복과 관련이 있다. Hwagu Kang, *Reading the Wife/Sister Narratives in Genesis* (Eugene: Pickwick, 2018) 그리고 Mark E. Biddle, “The ‘Endangered Ancestress’ and Blessing for the

로 말미암아 이방에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전달되고 만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를 달으셨다<sup>20:18</sup>. 하지만 그와 함께 중요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하실 때, 그를 ‘선지자’라고 칭하셨다는 것이다<sup>7절</sup>.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기도하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방인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어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시고 출산하게 하셨다<sup>17절</sup>. 소돔 내리티브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과 열방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 그와 관련해 구체적인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 2) 이삭과 이방의 만남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는 말처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실패했던 바를 똑같이 반복한다<sup>창26:1-11</sup>. 이삭은 대개 위대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이거나, 위대한 아들 야곱의 아버지로 나타나는데, 창세기 26장에서만큼은 오롯이 이삭으로서 등장한다.<sup>29</sup> 비록 ‘복’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 명백하게 26장 전체는 ‘복’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sup>30</sup> 이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부요하게 되었으며, 이방

---

Nation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9 (1990), 599-611을 참조하라.

29. 이삭과 관련된 본문은 창세기 21장 1-7, 8-14절, 22장 1-19절, 24장 62-67절, 25장 19-28절, 26장 1-35절, 27장 1-46절, 35장 27-29절에서 볼 수 있다.

30. 창세기 25장과 27장 역시 ‘복’이라는 주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창세기 25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 주셨다는 표현이 먼저 나온 뒤 바로 이어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 다툼이 나오는데, 여기서 장자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표현(bekora)은 복(beraka)이라는 단어와 언어유희로 연결되는 단어이다. 이는 장자권이 아버지의 복과 깊이 연결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창세기 27장 역시 이삭의 ‘복’을 누가 받을 것인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25-27장 전체는 ‘복’이라는 주제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족장들의 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중에 하나님의 복이 이방에까지 흘러가는 것이 그 한 가운데 위치한다는 것이 26장의 특징이다.

J. P. Fokkema, *Narrative Art in Genesis: Specimens of Stylistic and Structural Analysis* (Amsterdam: Van Gorcum, 1975), 98-115.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심을 보았고, 그래서 그는 결국 이삭에게 나아와 언약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이방 왕은 이삭에게 있는 하나님의 복을 보고 그것을 함께 누리기 위해 이삭에게 나아온 것이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된다.

### 3) 야곱과 이방의 만남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세겜 땅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보낸 20년의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은 어떤 이유인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그 계획은 좌절되었고, 다시 6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돌아갈 것을 명령하신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창31:3

“나는 벤엘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창31:13

이렇듯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에 걸쳐 주어지는데, 특히 여기서 야곱이 꿈에 만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벤엘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시고, 그럼으로써 벤엘에서 야곱이 서원한 것을 기억하고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신다. 따라서 야곱이 귀국한 동기는 벤엘로 돌아가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지만, 오히려 야곱은 벤엘이 아니라 세겜에 거주하고자 한다. 그가 벤

엘이 아닌 세겜에 정착하려고 한 것은, 그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밭을 구입한 행위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sup>창33:19</sup>.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요, 자신이 서원한 내용을 지키는 것도 아니었다. 결국 곧이어 벌어지는 딸 디나의 강간 사건과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는 사건은 이 같은 야곱의 불순종에 기초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열두 아들들은 거짓으로 세겜 사람들을 속였을 뿐 아니라<sup>창34:13</sup>,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비롯해 세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사로잡았다<sup>창34:26-29</sup>. 결과적으로 야곱이 베엘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하려 함으로써 그와 그의 가족은 이방에 복이 아니라 저주를 끼치게 된 것이다. 조상들의 실수를 야곱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말년에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은 먼저 바로를 만나 그를 위해 복을 빈다<sup>창47:7-10</sup>. 본문은 바로와 야곱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족장의 축복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기사를 담고 있는 창세기 47장 7~10절의 시작과 끝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다”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배치시킨 것이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은 야곱에게, 그리고 창세기 전체의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달한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서서히 성취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기 때문이다.

#### 4) 요셉과 이방의 만남

요셉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족장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는 다른 위치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따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하시거나, 요셉을 위해 특별하게 드러나는 기적을 베푸신 적

도 없으시다. 창세기 이후의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불려진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은 약속을 받은 족장이지만, 요셉은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첫 번째 모델과도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sup>31</sup>

요셉이 만난 첫 번째 이방인은 보디발이다(창39장). 보디발의 집안에서 요셉의 삶은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은 변화들을 겪는다. 그러나 이야기 전체를 이끌고 가는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고, 그래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창39:2,3,5,21,23).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심을 애굽 사람들이 보고 인정했다는 점이다. 창세기 39장 5절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와 복이 그의 집과 함께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지라”고 설명한다.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 보디발과 그의 온 집안에 미치게 된 것은 요셉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는 창세기 12장 3절의 구체적인 성취이다.

한 가정에 미쳤던 하나님의 복은 이제 요셉의 삶을 통해 애굽 전체 나아가 열방에까지 확장된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 7년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요셉이 온 세상의 구원자로 역할하게 된 것이다.

“은 지면에 기근이 있으매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새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

---

31. 창세기의 문학적 구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톨레도트의 구문으로 볼 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려티브는 쉼의 가계에 종속되는 반면,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창37-50장)는 야곱의 족보로 독립된 형태를 취한다. 그러므로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7장 1절까지는 족장들의 내려티브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 강조되는 반면, 요셉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창세기 37장 2절에서 50장 26절까지는 그 약속의 성취를 보다 구체적으로 내다본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톨레도트 구문에 대해서는 강화규, “오경에 나타난 톨레도트 양식 연구,” 『구약논단』 13 (2019), 48-81을 참조하라.

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창41:56-57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창47:12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집만이 아니라 애굽의 온 땅은 물론 나아가 각 나라에서 찾아온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즉 열방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요셉 역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50:20

이처럼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 3절의 약속을 부분적이거나 실제로 성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적 부르심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선교적 부르심이 단순히 타락 이후에 주어진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창조명령에서부터 이미 주어져

있었던 것임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복 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자손들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방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에 따라 창세기는 반복적으로 족장들과 이방인들의 만남을 언급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은 모두 이방 땅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다. 비록 족장들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전달자로서의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이방 세계로 전달되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족장들은 선교적 사명에 동참하도록 부름 받은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그분의 계획을 시작하신 것이다.